

# 격조 있는 행동과 예절로 헤아리니... 通 했다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71)은 조선왕실의례의 귀환을 누구보다 기다려 왔다.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이자 궁중다례보유자인 그는 올 3월 국립민속박물관 회장에 취임한데 이어 7월 1일 제2기 서울특별시 문화재찾기시민위원장에 위촉됐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의례 등 문화재 되찾기 운동을 하며 쌓은 내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는 2009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각계각층 인사 34명의 시민위원은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자료수집,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반환운동을 한다. 특히 서울시의회 조선왕실의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단체의 경험과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이 결합해 문화재찾기 운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그 핵심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있었다.

7월 13일 서울 성북동 명원다례전수관에서 김의정 회장을 만났다. 인터뷰가 진행될 때만해도 4월 반환 확정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소식이 없던 때였다. 김 회장은 조선왕조의례가 오고 난 후 인터뷰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왜 그렇게 주기 싫어하는지... 제일 큰 문제는 의례가 왕실에 있다는 거예요.”

에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살가운 투정으로 드러냈다.

김의정 회장이 문화재 찾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중앙신도회장 취임 이듬해인 2006년부터다.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 월정사 정념 스님, 불선사 해문 스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원웅 前 의원 등으로 구성된 환수위는 4월 일본 의례 반환 확정을 얻어내기까지 일본을 40여 차례 드나들었다. 김의정 회장은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할 때에는 여비를 지원하며 문화재 되찾기에 힘을 실었다.

노력 끝에 일본 공내정이 소장한 한국도서의 한국 반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일 도서협정 비준안이 중의원 의무위원회에 통과됐다. 6월 10일 협정 발효에 이어 외교 통상부는 7월 18일 공내정에 보관된 조선왕실의례 반환을 위한 실무협약이 8월 초 진행됨을 알렸다. 89년 만에 빼앗겼던 역사를 되찾게 된 것이다.

“처음 조선왕실의례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2007년 환수위 해문 스님은 서울 중앙지법에 일본왕실과 정부를 상대로 의례 반환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어요.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에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는 감동이 필요해요. 더 이상 지식만으로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의 열쇠가 감동이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보급 문화재 6만여 점을 되찾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제2기 서울특별시 문화재찾기시민위원장에 선출된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명원다례전수관에서 다례 시연을 보이고 있다.

대한 헤이그 조약에 의해 일본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는 소장 송달은 거부할 수 있다며 소장 송달을 거부했습니다. 모두들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나니 분위기였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조선왕실의례 되찾기 운동은 경술국치 100년의 해인 2010년 8월 환수를 목표로 진행됐다. 일본 왕실 소장 문화재 반환은 어려움을 각오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에 문화재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문화재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은 민간단체인 환수위의 몫이었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문화재 반환 청구권을 포기 하지 않았던 북한과의 연대를 통해 남북교류를 하기도 했었다.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 중 가장 어렵고 상징적인 것이 의례였어요. 의례 환수가 약탈 문화재 환수운동의 전형, 모범이 될 것이라고 봤기에 지칠 겨를 없이 계속 밀고 왔죠. 우리 것을 되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왜 해야하는가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은 없었어요.”

일본왕실 소장 의례 되찾기 어려움 각오했지만 만만치 않았던 의례 환수위해 북한과 연대하기도

왕실에 소장돼 있어 할 수 없다는 의견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을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다. 김의정 회장은 전략을 바꿨다. 무조건 우리 것이니 달라고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의정 회장은 정치적인 협상보다는 감성을 건드리는 섬세한 외교술을 펼쳤다. 어린 시절 일본에 살면서 일본인들이 예절을 중시 여긴다는 것을 알았고, 김 회장이 궁중다례를 전수했다는 사실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 전통다도에는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인들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예절이 없으면 무시를 하거든요. 격조 있는 행동과 예절로 일본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의정 회장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과 쉬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지혜

가 필요했다. 일본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선물을 주고받는 점에 주목했다. 또 문법을 갖춘 일본어로 대화하고, 즐겁고 예절을 갖춘 식사자리 등 놓치지 쉬운 일들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마음을 연 후 조선왕실의례로 화제를 돌려 다가가고.

“일본이 선진국이고 문화국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했어요. 민족 문화재는 잠재울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영인본을 찍어서 모든 학자가 연구해서 세계적인 문화를 전 세계가 알리는 문화국답게 말이죠.”

김 회장과 환수위의 이같은 태도에 일본 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는 감동이 필요해요. 더 이상 지식만으로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의 열쇠가 감동이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보급 문화재 6만여 점을 되찾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김의정 회장은 최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학생이 ‘남의 나라에 잘 보관돼 있는 문화재를 굳이 찾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며 환수운동의 필요성에 반문을 했다는 것이다.

모두 ‘불가능’이라 했을 때 마음 움직이는 전략으로 가능성 키워 역사 의식 바로 잡는 일 계속 나설 것

“우리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을 안다면 이런 이야기를 과연 했을까요. 문화재나 우리 전통 문화는 국보급 청자 백자나 왕실의 문화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찾기시민위원장으로 서 역사의를 바로 세우고 교육하는 일에 힘을 계속합니다.”

김의정 회장이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태어나면서 부터다. 관심이라고 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었다. 이런 데에는 김의정 회장의 어머니故 명원 김미희 여사와 쌍용그룹 창업자로 기업을 경영하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예절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제에 의해 흩어진 우리 문화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데 전념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전통다례를 이어가도록 외조를 했다. 6남매 중 유난히 허약했던 김의정 회장은 밖으로 다니기 보다는 어머니 곁에서 보고 배웠다.

“차 주전자 뚜껑 하나 여는 것을 가지고 밤낮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보고 당신의 대를 이어 다례를 전수하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 안한다’며 땀뻑거렸어요. 어머니에게 사랑 받고 싶어서 투정 부린 거죠. 어린 마음에 중요성을 모르기도 했고요. 이제 와 보니 정말 중요한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김 회장을 문화재 되찾기 운동의 현장 뒤에서 남모르게 일해 왔다. 그래서 그를 숨은 공신이라고 한다. 김 회장은 “부모님은 자신들의 불사(佛事)를 자식에게도 알려지 않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남몰래 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알아준다고 믿고 있어요. 문화재 되찾기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일든 억지로 되는 것도 없고 부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불제자가 된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할 뿐이죠.” 이상언 기자

##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운장대 인등      유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 아름다운등

팔각점등연가등      만월왕상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뭇으로 퍼져 화려한 빛가득 특징      ● 시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